

## XI. 특용작물 지도사업

# 1. 사업결과 요약

## 가. 버섯시범

- 액체 종균을 이용한 병버섯 생산으로 노동력 절감 및 안정생산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병버섯 생력화 액체종균이용 시범사업을 화성, 여주, 가평에 3개소를 설치하여 액체종균 배양용 양질기자재 및 안정생산 시스템 설치하였고, 성과는 병 작업수량이 1일 평균 530kg으로 인근 농가 대비 108%의 증수효과가 있었음
- 버섯재배균상의 비닐멀칭재배로 노동력 절감과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버섯생산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느타리버섯 비닐멀칭 안정생산 시범사업은 김포, 양주, 연천 3개소를 설치하였고, 성과로는 농가당(165㎡당) 평균 4,397천원의 소득을 올려 인근농가 대비 108%의 농가소득 증대를 가져왔음
- 신제품 버섯류 안정생산 시범사업은 연천에 농가확대 보급이 가능한 신제품 버섯류의 특성 비교시험을 하기 위하여 1개소를 설치하여 신제품의 고유 특성비교, 버섯류의 특성에 맞는 적정 환경유지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에서 선호하는 느타리버섯 품종 특성을 파악하는데 노력하였음
- 노후화된 느타리버섯 재배사의 환경을 개선하여(재배사 균상시설 보완), 고품질 버섯의 안정생산을 위한 느타리버섯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안성에 1개소를 설치하였고, 성과로는 소득이 시범 1회 재배로 7,600천원을 올려, 인근농가 대비 111%의 소득증대를 가져왔음
- 버섯재배사 환기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버섯재배사 환기개선 시범사업을 광주에 1개소 설치하였으며, 주요성과로는 50평에 600kg 생산으로 인근 재배농가 450kg보다 123%의 증수효과를 가져와 시범농가 소득이 높았음

- 새로 육종한 버섯 신품종의 재배환경과 생산성을 구명코자 느타리버섯 신품종(소담, 지미, 흑백)병(병) 재배시범사업을 포천에 1개소 설치하여 버섯재배 농업인에게 신품종을 확대 보급코자 노력하였음
- 버섯 배지 조성비율을 확립하여 실용화 가능 안정생산기술을 확립하기 위하여 큰느타리버섯 우량배지 조성 시범사업을 고양에 1개소 설치 운영하여 금후 배지조성과 환경조건 설정에 따른 생육상태 기록으로 현지 평가회를 개최하여 큰느타리버섯 재배농가에 우량배지 조성에 따른 기술을 확대 보급코자 함
- 느타리버섯 균상재배사 내부에 온도조절을 위한 냉동기를 설치하여 여름철 느타리버섯 출하로 농가소득 증대로 도모하기 위한 여름철 고품질 버섯 안정생산시범을 고양, 남양주, 여주, 연천 등 10개소에 설치하여 연중 버섯생산체계 확립과
- 버섯재배가 균상에서 병(병) 재배로 전환되고 있어 배지생산과 재배의 분업화로 생산성 증대를 위한 친환경 느타리버섯 병(병)재배시범을 2개소(양주, 용인)에 설치하여 배지배양과 버섯생산의 분업화 체계 확립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음
- 광주버섯연구소에서 새로 개발한 아위느타리버섯의 재배기술 체계 확립과 소비자의 기호 충족 및 소비창출로 농가소득에 기여하기 위한 아위버섯 재배농가 실증 시범사업을 여주에 1개소를 설치하였고, 성과는 아위버섯이 본격 생산되는 2006년도에 분석하여 새로 개발된 아위버섯의 기술지도 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 유통기간이 짧은 식용 생버섯의 신선도 유지기간을 연장하여 소비자에게 고품질버섯을 공급하고 출하물량을 조절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농산물(버섯) 선도 유지기술 시범사업을 광주, 양주, 연천, 용인, 이천 등에 6개소를 설치하였고 성과로는 6개소의 평균 입고량은 7,800kg이며, 출하시 판매가격이 4,680원으로 입고시 가격보다 118%의 높은 판매가격 증대효과를 가져왔음

- 버섯재배사의 온도, 습도, 탄산가스 등의 재배환경 개선으로 고품질 버섯 안정생산을 위하여 느타리버섯 생력화 재배시범사업을 안성, 양평, 여주 등 5개소에 설치하여 버섯 연중 안정생산체계 확립 및 생산성 증대에 노력하였으며, 주요성과는 시범농가가 28,544천원으로 인근농가 대비 143%의 소득효과가 있었음

## 나. 약용작물

- 인삼생산 및 기상재해 예상을 위한 우량 인삼생산 해가림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양평에 1개소를 설치하여 인근지역 인삼재배농가의 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생육상황은 18.1cm로 인근 포장에 비해 115% 신장하였고, 생리장해도 적었으며, 시범사업이 완료되는 2009년도에 성과분석으로 인삼재배농가의 기술지도 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 마이크로파 건조에 의한 특용작물 품질의 고급화 및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마이크로파 이용 특용작물 건조 시범사업을 파주, 이천에 2개소를 설치하였고, 성과로는 버섯건조로 상품성을 향상시켰으며, 건조시간 및 에너지 절감 등으로 18a당 건조소득 2,650천원으로 인근보다 112%의 소득증대효과가 있었음
-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및 토양물리성 개선을 위한 고품질 약용작물 (황기) 생산환경개선 시범사업은 포천에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성과로는 10a당 수량은 209kg으로 인근 포장대비 121% 증대, 1ha당 소요 노력은 52시간으로 인근배다 37%의 절감효과를 가져왔음
- 천연강장제용 누에 수번데기 생산으로 양잠농가의 소득증대 향상을 위하여 고품질누에 수번데기 생산기술 시범사업을 화성에 1개소를 지원 운영하여 누에 수번데기 생산 판매로 10a당 2,640천원 소득으로 인근 농가보다 106%의 농가소득 증대의 효과가 있었음

- 고품질 인삼의 생산과 상품의 차별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향상시키기 위한 인삼재배 생력화 기술 시범사업은 가평, 여주, 연천에 3개소를 설치하여 개량해가림시설, 자동관수시설, 생력기자재 등을 지원하였고, 인근 인삼재배농가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생육상황은 16.4cm로 인근 재배농가 대비 124%가 더 신장하였으며, 성과는 시범사업이 완료되는 2009년도에 분석하여 인삼재배농가의 기술지도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 우량묘삼 생산공급 및 생력화 재배로 「경기 홍삼」 재배면적 확대와 신품종 우량묘삼을 조기에 확대 보급하기 위한 신품종(천종) 우량묘삼 생산기술 시범포를 3개소(양주, 연천, 파주)에 0.7ha 설치하여 2007년 본포 7ha이식재배와 매년 신품종 확대보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 철저한 예정지 관리로 고품질 인삼생산을 위한 인삼예정지 관리기술 시범사업을 4개소(김포, 이천, 포천, 화성)에 설치 운영하여 토양검정에 의한 시비처방으로 토양개량제, 청초, 호밀시용후 30cm깊이로 10~15회 깊이갈이를 실시하여 토양물리성을 개량하여 인삼재배여건에 맞는 토양으로 개량하였음

## 다. 유지작물

- 참깨재배의 기계화 일관 작업으로 노동력 절감과 우량품종 보급률 향상을 위하여 연천, 여주에 2개소의 시범단지를 설치하여 파종기, 수확기, 탈곡기, 선별기 등을 지원하여 부족 노동력을 해소하였으며, 10a당 58kg을 생산하여 인근지역 농가보다 112%의 증수효과가 있었으며, 인근 관행농가에 비해 소요시간(시간/ha)이 483시간으로 35%의 절감효과와 소요비용(천원/ha) 880으로 44%의 절감효과가 있었음